

2005년 3월 17일 공보 2005- 호

보도참고자료

이 자료는 3월 1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16일 12:00 이후부터 취급가능

제 목 :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세계 주요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차장 이상현

Tel : 759-4221, Fax : 759-4307, E-mail : shlee@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당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세계 주요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2005. 3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

차 례

I. 분석 배경	1
II.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세계 주요기업간 경영성과 비교	3
1. 재무구조	3
2. 수 익 성	5
3. 성 장 성	7
III. 요약 및 시사점	10

I. 분석 배경

— 우리나라는 1996년에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라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는 한편 경제규모면에서도 명목GDP(2003년) 기준 세계 11위, 교역규모(2003년) 기준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의 주요국으로 부상

○ 개별기업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 발표한 2004년도 세계 500대 기업에 11개 업체*가 포함되는 등 크게 성장

* 삼성전자(54위), 현대자동차(98위), SK(119위), LG전자(147위), 삼성생명(263위), 한국전력(265위), 한화(323위), 국민은행(357위), 포스코(361위), KT(406위), 삼성물산(493위)

— 우리나라 기업들이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하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기업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 필요

⇒ 국내 대표기업들의 경영성과 지표를 세계 주요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함

○ 섬유, 화학,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등 5개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2003년중 매출액기준 국내외 상위 3대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재무제표는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 자회사의 실적까지 합친 연결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어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도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분석

국내외 업종별 분석대상업체¹⁾ 현황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섬 유	효성 (4,353)	Christian Dior (14,087)
	신원 (355)	Toray Industries (10,268)
	에스지위카스 (283)	Adidas-Salomon AG (7,081)
화 학 ³⁾	현대석유화학 (1,998)	BASF Corp. (37,698)
	여천NCC (1,817)	Dow Chemical Company (32,632)
	호남석유화학 (1,225)	E.I. Du Pont (26,996)
철 강	포스코 (14,925)	ThyssenKrupp AG (40,835)
	아이앤아이스틸 (3,466)	Nippon Steel Corp. (25,221)
	동국제강 (3,024)	JFE Holdings Inc. (23,405)
전 기 전 자 ⁴⁾	삼성전자 (54,382)	IBM Co. (89,131)
	삼성SDI (6,039)	Hewlett-Packard Co. (73,061)
	엘지필립스엘시디 (5,116)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71,920)
자 동 차 ⁵⁾	현대자동차 (39,088)	Daimler Crysler (171,870)
	기아자동차 (12,672)	Toyota Motor Corp. (163,637)
	지엠대우오토 (3,588)	General Motors Corp. (155,831)

주 : 1) 2003년중 국내 대표기업(5개업종 15개업체)의 매출액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기업경영분석대상 기준)의 27.4%를 차지하며 세계 주요기업은 2003년 12월말 현재 Dow Jones Sector Titans에 공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업종별 매출액 상위 3대기업을 선정

2) ()내는 업체별 매출액(단위:백만U\$)임

3) 2003년중 업체가 분할된 삼성종합화학은 제외

4) 금융사업부문(GESE) 비중이 높은 GE사는 제외

5) General Motors Corp.은 금융사업부문을 제외

II. 우리나라 대표기업과 세계 주요기업간 경영성과 비교

1. 재무구조

□ 재무구조는 국내기업이 세계 주요기업에 비해 양호

-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부채비율은 151.2%로 세계 주요기업의 250.2%보다 99.0%p나 낮고, 자기자본비율은 39.8%로 세계 주요기업(28.4%)보다 11.4%p 높은 수준

국내외 대표기업간 재무구조 관련지표 비교¹⁾
(2003년말 현재)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A - B(%p)
부 채 비 율 ²⁾	151.2	250.2	-99.0
자 기 자 본 비 율 ³⁾	39.8	28.4	11.4

주 : 1) 분석대상기업 전체(또는 업종별 평균)의 경영지표는 지표 구성항목별로 해당기업의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이하 동일)

2)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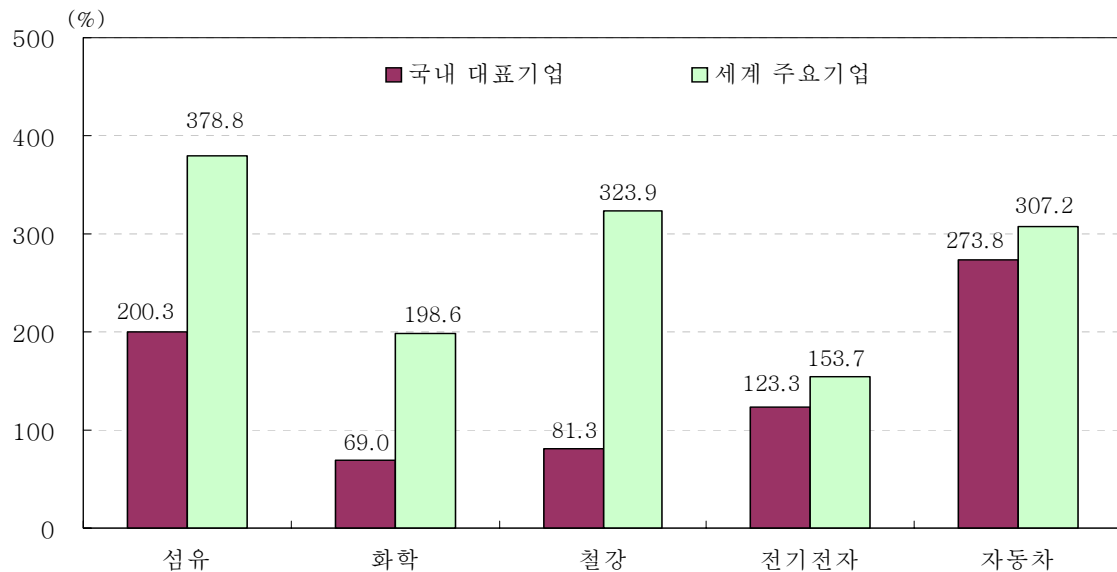
3)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업종별로는 비교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에 걸쳐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하에 대기업 중심의 강력한 재무구조개선 추진^{*}에 힘입은 것으로, 특히 화학(69.0%), 철강(81.3%) 등의 업종에서는 국내 대표기업의 부채비율이 100%를 하회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계열에 대해 부채비율 20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구조 우량기업집단(부채비율 100% 미만)에 대해서는 출자총액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기업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

국내외 대표기업간 부채비율 비교
(2003년말 현재)



□ 그러나 부채의 만기구조면에서는 세계 주요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

—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경우 총부채중 만기 1년 이내인 유동부채의 비중이 2003년말 현재 65.8%로 세계 주요기업의 49.6%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외상매입금, 선수금 등 비차입성부채를 제외하고 본 총차입금에서 단기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2.0%로 세계 주요기업의 33.1%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수준

국내외 대표기업간 단기차입금비중 및 유동비율 비교

(%)

		유동부채/총부채		단기차입금/총차입금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석	유	69.1	39.7	59.1	38.6
화	학	64.9	33.4	57.5	27.8
철	강	59.2	46.2	50.8	30.2
전 기 전 자		71.8	58.8	59.4	27.4
자 동 차		62.2	50.8	69.1	35.0
평	균	65.8	49.6	62.0	33.1

2. 수 익 성

□ 수익성도 국내기업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높은 수준

- 2003년중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8.6%로 세계 주요기업(4.5%)에 비해 4.1%p 높게 나타남
- 이는 국내 대표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9.1%로 세계 주요기업(5.5%)보다 3.6%p 높은 데 주로 기인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경상이익률 비교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매출액대비, %) A - B(%p)
영 업 이 익	9.1	5.5	3.6
영업외손익	-0.5	-1.0	0.5
경 상 이 익	8.6	4.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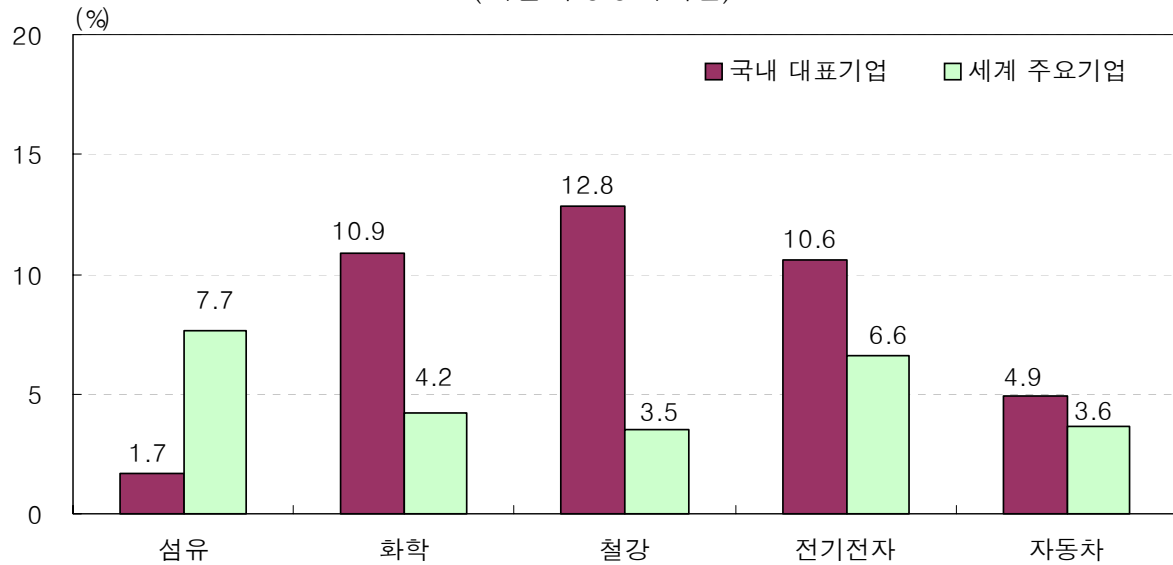
- 업종별로 보면 섬유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국내 대표기업들이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영업이익률에서 모두 세계 주요기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다만, 섬유업종의 경우는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모두 국내 대표기업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임

국내외 대표기업간 주요 수익성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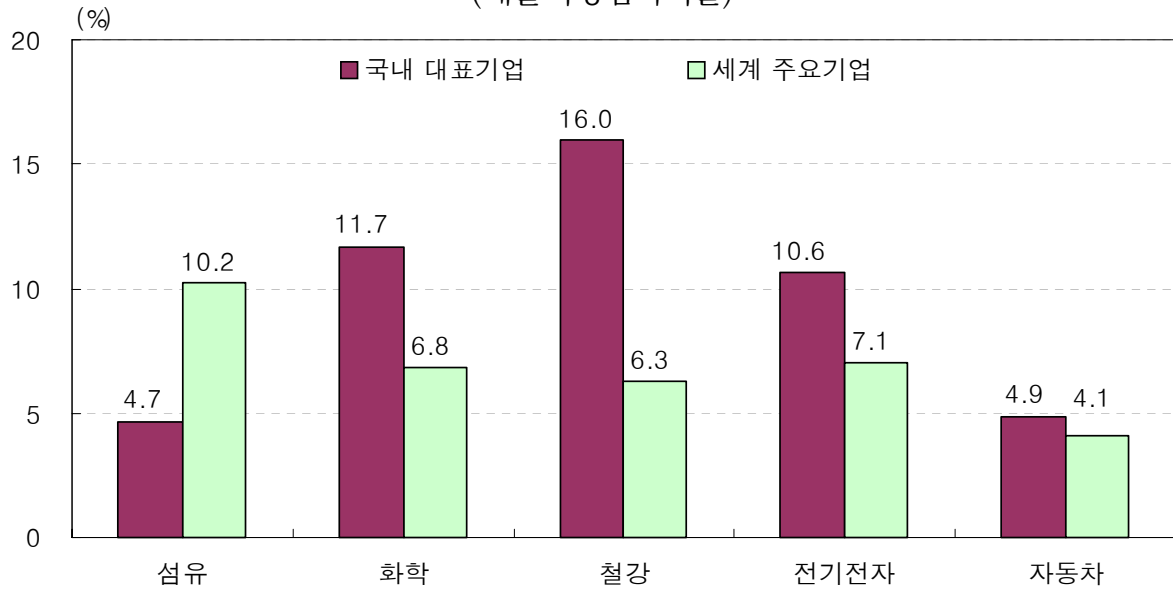
		(%)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국내 대표기업	세계 주요기업
섬	유	1.7	7.7	4.7	10.2
화	학	10.9	4.2	11.7	6.8
철	강	12.8	3.5	16.0	6.3
전 기 전 자		10.6	6.6	10.6	7.1
자 동 차		4.9	3.6	4.9	4.1
평	균	8.6	4.5	9.1	5.5

국내외 대표기업간 주요 수익성지표 비교

(매출액경상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3. 성 장 성

□ 매출액증가율은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02 03년중 평균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13.8%로 세계 주요기업(11.6%)보다 2.2%p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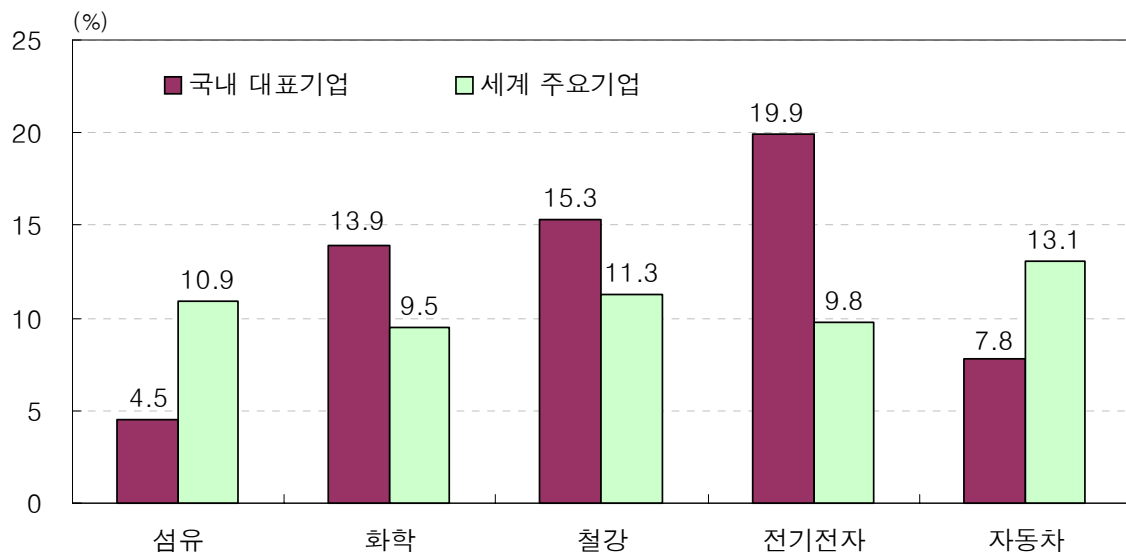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증가율 비교
(2002 03년중 평균)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A - B (%p)
13.8	11.6	2.2

- 업종별로는 최근 수출호조를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철강, 화학 업종의 경우 국내기업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섬유, 자동차 업종은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등으로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국내외 대표기업간 업종별 매출액증가율 비교
(2002 03년중 평균)



□ 유형자산증가율은 국내기업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수준

- 2002 03년중 평균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3.2%로 세계 주요기업(5.2%)에 비해 2.0%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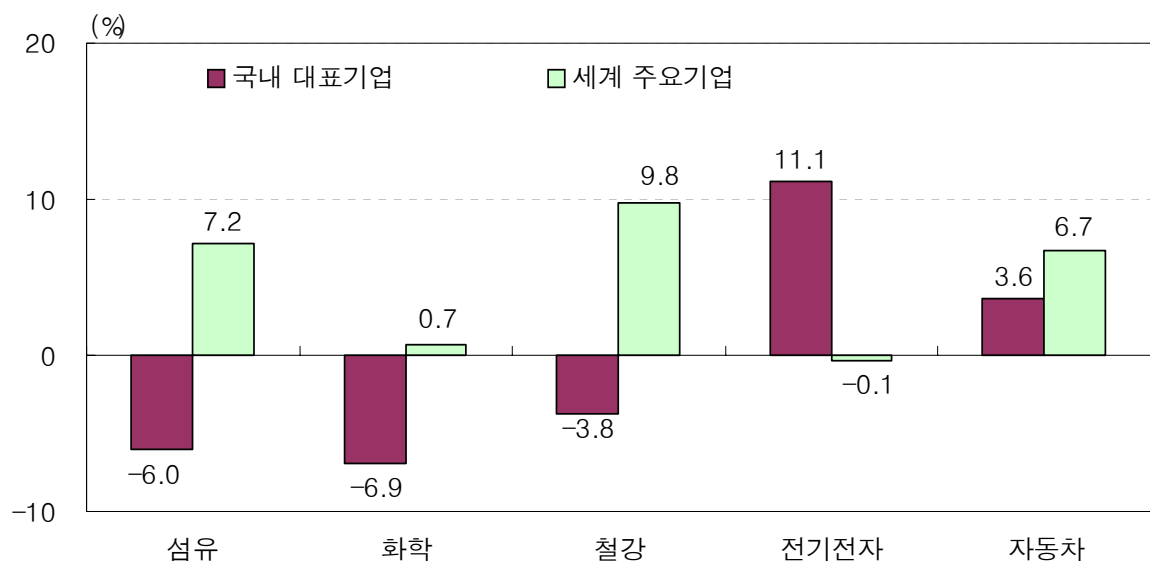
국내외 대표기업간 유형자산증가율 비교
(2002 03년중 평균)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A - B (%p)
3.2	5.2	-2.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 화학, 철강 업종의 2002 03년중 평균 유형자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대체투자에도 못미치는 부진한 모습임

- 다만, 전기전자 업종은 반도체 및 LCD공장 증설 등으로 유형자산이 11.1% 증가하여 컴퓨터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IBM 등 세계 주요기업(-0.1%)보다 크게 호조를 보임

국내외 대표기업간 업종별 유형자산증가율 비교
(2002 03년 평균)



□ 연구개발투자는 국내기업이 세계 주요기업보다 낮은 수준

- 업종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보면 전기전자 업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세계 주요기업이 국내 대표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국내외 대표기업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비교

(%)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A-B (%p)
섬	유	0.8	1.5	-0.7
화	학	0.2	3.7	-3.5
철	강	1.5	1.5	0.0
전 기 전 자		5.2	6.1	-0.9
자 동 차		2.4	3.9	-1.5
평	균	3.3	4.1	-0.8

-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투자금액의 규모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이 세계 주요기업의 13.0%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기전자 업종에 있어서도 세계 주요기업의 23.7%에 불과한 실정임

국내외 대표기업간 연구개발투자금액 비교

(백만US\$)

		국내 대표기업(A)	세계 주요기업(B)	A/B(%)
섬	유	39.8	477.1	8.3
화	학	11.4	3,578.7	0.3
철	강	322.8	1,382.2	23.4
전 기 전 자		3,384.8	14,300.0	23.7
자 동 차		1,307.7	19,173.0	6.8
계		5,066.5	38,911.0	13.0

주 : 1) 환산 적용환율은 연평균 기준환율 1191.9원임

III.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부채 상환으로 최근에는 세계 주요기업에 비하여 대체로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최근 수출호조 등으로 매출이 급신장한 전기전자, 철강,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모두 크게 개선됨
- 그러나 부채 만기구조의 안정성 및 장기성장성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이 세계 주요기업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부채의 만기구조에서 단기성 차입금의 비중(62.0%)이 세계 주요기업(33.1%)에 비해 크게 높아 예상치 못한 금융환경 변화나 경제적 충격 발생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
 - 또한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력을 뒷받침해주는 투자가 부진하며 특히 연구개발투자가 세계 주요기업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물론 매출액대비 비중으로 볼 경우에도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차입금의 만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